

서평

왕더웨이 '서정론'의 해체론적 서술전략: 『抒情傳統與中國現代性』*

노정은(건국대 교수, 중어중문학과)

I. 『서정전통과 중국 현대성』의 서정담론

2006년 가을 베이징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의 왕더웨이(David Der-wei Wang, 王德威) 교수는 '서정전통과 중국 현대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는데, 8회에 걸친 강연은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한 '유정(有情)의 역사'를 서두로 '서정과 계몽', '서정과 혁명', '서정과 국족구성', '서정과 시간성', '서정과 서정주체'라는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2010년 삼련서점(三聯書店)에서 출간된 『서정전통과 중국 현대성』(抒情傳統與中國現代性—在北大的八堂課)은 베이징 대학 강연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제기된 왕더웨이의 '서정전통'은 '혁명서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역사인식의 재평가와 문학사 계보의 재구성을 전

제하는 만큼 대륙의 전공자들에게 '보수적 반향'과 '정서적 반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주제였다. 또한 왕더웨이의 서정론은 기존 서정담론에 대한 메타비평적 구도를 취하며 그 '차이-넘어섬'을 강화하는 논리로 구성되고 있다. 기존의 서정전통론이 중국 고전문학과 서양 고전문학의 횡적 비교라고 한다면, 왕더웨이의 입각점은 중국 현대문학에 작동하는 중국 서정전통의 존재양태를 탐색하고 있으며, 기존의 5·4문학과 서정전통의 연속성에 대한 관심을 중국의 현대적 주체 형성과 서정전통의 의미작용, 즉 서정전통의 전승으로 구성되는 중국의 현대성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그의 관심이 '중국의 현대성'과 '현대적 주체구성'에 관계되는 서정전통의 의미작용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서정전통은 역사적 전통으로서 계승되는 맥락이 아니라 현대적 주체에 의해 재구성되는 전통, 즉 이데올로기적 층위에서 접근되고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논점이 서정전통의 내포 문제보다 그 외연에서 발생하는 역사/인식과 사료/해석의 층위에서 구성되고 있다고 할 때 그 의미망의 복잡함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서정담론은 20세기 중국 현대문학사에 계몽주의 전통과 혁명 전통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기 위한 비판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비판의 근거는 20세기 서정 관련 문헌들에 대한 집중적인 독서와 검토에 기초하고 있다. 문제의식의 강도가 높은 만큼 그의 논점은 꼼꼼한 사료들로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왕더웨이 자신의 서정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절제되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전략은 저자의 의도를 쉽게 읽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¹⁾ 그는 서정에 관한 창작, 이론, '의론'(議論)에 해당하는 방증자료를 끌

* 이 글은 "왕더웨이 '유정의 역사'에 대한 짧은 독해"([『중국현대문학』, 제54호)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1) 저자는 다양한 서정 관련 논의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서정담론이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서정'을 "정교논술(情教論述), 지식방법, 감각부호, 실존조건의 기호형식"이라는 포괄적 정의로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다. 王德威(2010), p. 5.

어들이는데, 여기에는 서정 문류 자체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자들의 범주 역시 다원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창작 관련 텍스트는 기존 중국 현대문학 내부에 한정되는 반면, 서정 관련 논의는 대륙을 넘어 타이완, 홍콩, 미국과 체코까지 해외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폭넓게 포섭한다. 포괄적 서정 논의를 좌표로 배치하면서 저자가 제시하는 구체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세기 주체의식 구성과정에서 서정은 어떻게 개입하고 있으며, 문학에서 어떠한 운동양식으로 발현되는가, 5·4 계몽담론과 혁명담론에서 중국 시전통과 단절적으로 파악되는 개인주의적 서정성이나 혁명적 낭만성은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나, 1950년대에 왜 대륙의 안과 밖에서 서정 논의가 동시적으로 집중 제기되는가이다. 이러한 질문들을 추론해본다면, 왕더웨이의 서정 논의는 1950년대 논자들의 서정 견해를 재배치하여 담론을 구성하는 경로와 혁명서사에 대한 해체론적 기술방식으로 '유정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경로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방식은 복합적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유정의 역사'라는 기표에서 드러나 있듯이 저자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 재구성의 기획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의미망들은 이 책이 '정치와 미학', '역사와 시학'의 관계라는 왕더웨이의 주체의식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왕더웨이의 중국 현대문학에 기존 연구를 '그늘진 현대성', '만청(晩淸) 없는 5·4는 가능한가', '중국을 상상하는 법', '소설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일별해볼 때, 그의 학문적 경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문학'과 '역사'의 긴장관계에 대한 천착은 '역사'와 '역사 재현'이라는 아포리아에 대한 경로로 중국 현대문학 연구를 접근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의 역사와 시학의 문제의식을 20세기 전반으로 확장하여 하나의 문학사적 방법론으로 보편화한다는 차원에서 그간의 단계적 고민과 단상을 전면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의 계몽담론의 수용과 중

국 서정전통과의 단절의 기제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아포리아를 '수행적' 방식으로 전복하려 함으로써 서정성을 '정치적' 시각에서 사유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서정성은 그의 역사적·정치적 관점의 방법론이자 서술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책의 방점은 20세기 문학/역사에 대한 정치적 시각을 제시한다는 데 놓여 있다. 이러한 의도를 흥미롭게 제시하는 예시는 이 책에서 가장 논쟁적 지점으로 거론되는 취치우바이(瞿秋白)의 "부질없는 말"(多余的話)에 대한 '홍색서정'(紅色抒情)의 해석이다. 왕더웨이는 이 글을 '결여'와 '울분'—『초사』의 發憤以抒情—의 서정이 혁명이라는 '대역사'와 교착하는 지점에서 발현되는 '배고픔의 서정미학'으로 해석하면서, 이때 서정은 취치우바이가 혁명에 투신하고 혁명을 회의하였던 역사와의 교착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은 혁명서사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던 이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독법으로 제시된다. 더불어 후란청(胡蘭成)의 『산하세월』(山河歲月)에 대해서도 서사적 문맥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중국 고전시의 율격을 활용하여 배치된 서정적 리듬감은 그 자체로 후란청의 정치적 역정에 대한 술회이며 예악(禮樂) 전통의 유토피아적 동경에 대한 '예악적 글쓰기'라고 설명한다. 잘 알듯이 후란청의 친일행위로 인해 그의 글들은 학술적으로도 논의될 수 없는 정치적 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왕더웨이의 배치는 전략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정 주체에 대한 역사적 맥락화를 통해 대륙 중심의 20세기 문학서사의 해석틀을 해체하는 경로로 재배치함으로써 더욱 예각화된다고 하겠다.

이 책이 베이징 대학의 강연록으로 출간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저서의 완정본이 미국에서 출간 예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륙의 반향이 예정된 상황에서 강연록의 형식으로 출간한 데에는 저자의 문화정치적 셈법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의 문학에 대한 근본주의적 고민의 경로는 미국에서 중국의 영상 미디어와 문화/사상에 대한 문화연

구가 현실적인 주류라고 할 때 오히려 소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실천적 동선을 미국 내부가 아니라 대륙 내부로 향하고 있으며, 타이완 출신의 입지를 화교문학권의 연대적 범주로 확대하여 담론권력을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전략으로 왕더웨이(王德威)는 타이완과 홍콩 등의 해외 화교문학을 ‘화어문학’(華語文學)이라는 담론으로 대륙의 문학 내부로 개입하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책의 출간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고려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에 대한 대륙의 반응도 흥미로운데, 서정론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이 소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국족주의적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다. 비판의 핵심은 해외 중국연구자의 중국 사료에 대한 접근과 연구방법이 여전히 서구의 이원론적인 사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때 ‘본토성’(本土性) 혹은 본토의 현실에 대한 비중을 대체하는 ‘한학화’(漢學化)는 중국을 서구 이론의 분석 사례로 접근하는 일종의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적 ‘태도’로 지적하고 있다(龐書緯). 특히 현대성에 대한 천착은 서구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본토의 구체성을 재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라는 것이다(湯擁華). 비판의 수사적 논리가 내부와 외부의 국족주의적 구도로 환원되고 있음은 왕더웨이가 이에 대한 성찰적 반성에서 자신의 논점을 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합되기 어려운 실존적 간극으로 작동되고 있다. 서구 이성주의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동일한 수사적 근거로 마주 서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왕더웨이의 서정론이 놓여 있다고 하겠다.

II. 『서정전통과 중국 현대성』의 서술전략

이 책의 서론이자 왕더웨이 서정론의 이론적 열개를 구성하는 “유정의 역사”에서 저자는 1950년대 세 명의 논자를 꼭짓점으로 배치하고 있

는데, 미국의 중국 시학(詩學) 연구자인 천스샹(陳世驥), 체코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자인 야로슬라프 프루세크(Jaroslav Průšek),²⁾ 대륙 작가인 선충원(沈從文)을 거론한다. 저자는 서로 다른 지역의 논자들과 그들의 다른 장르 범주의 텍스트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소환하는데, 프루세크의 현대문학사에 대한 서사, 천스샹의 시 전통에 관한 인식론, 선충원의 미공개 산문 “추상의 서정”(抽象的抒情)³⁾은 1950년대 서로 다른 정치공간에서 서정 논의가 집중되었다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냉전시기 체코에서 미국의 중국담론에 개입하는 좌파 문학사가, 미국에 정착한 타이완 출신 중국문학 연구자, 인민의 함성에 스스로를 동일시할 수 없었던 대륙의 문인의 텍스트에 나타난 1950년대라는 시간대에 서로 다른 정치공간에서의 발화 의미는 왕더웨이에 서정담론의 문화정치적 의미망 속에서 ‘하나의 층위’로 재정위되고 있으며, 세 발화 지점의 정치공간은 왕더웨이 담론의 정치성으로 재수렴되고 있다. 저자는 세 지점을 통해서 1950년대라는 냉전의 ‘시간서사’를 공간적으로 분화하여 기술하는 동시에 이를 기점으로 1950년대에서 이전의 대륙 문학을 소급하여 서술하는 ‘역술방식’(retrodiction)을 취하고 있다.

우선 저자가 서정담론 구성에서 이론적으로 기대고 있는 논자는 프루세크와 천스샹이다. 양자 모두 1950년대 서구 중국학계 1세대 연구자이며 각자의 연구에서 ‘서정’은 핵심 개념이다. 이러한 공통점에 비해 그들 사이에는 현대문학사가와 고전시학 연구자, 마르크스주의자와 자유주의자 등의 대비항이 적지 않게 놓이는데,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차

2) 프루세크(1906~80)는 미국 중국학계에서 샤즈칭(夏志清)과 더불어 1세대 중국 현대문학 연구자로 평가되는 학자다. 유물사관에 기초한 대표 논문집 『서정적 그리고 서사적인 것: 중국 현대문학 연구』(1963)는 문학의 내재적 접근을 강조하는 샤즈칭의 『근대중국소설사』(1961)와 대비되면서 미국 현대문학 연구자들에게 경전적 텍스트로 거론된다.

3) 1961년 여름 무렵에 쓰여진 글로 추정된다. 1989년 4월 『長河流不盡』에 처음 공개되었고, 『沈從文全集』(2002)에 수록된다.

이는 저자에게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활용되면서 담론의 장력을 확장시킨다. 서정담론에서 천스상과 프루세크가 교섭하는 지점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미국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사에서 프루세크의 영향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글에서 유일하게 비판적으로 논의되는 논자가 프루세크라는 점은 프루세크의 서정론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유의미성을 환기한다. 저자가 서정의 역사성을 입론하는 ‘사시(史詩)와 시사(詩史)’ 구도는 기본적으로 프루세크의 ‘서사와 서정’의 변용이다. 왕더웨이(王德威)는 프루세크의 장르적 기표를 역사와 시의 관계 기표인 ‘사시와 시사’라는 개념으로 끌어오는데, 이 개념은 단순히 서사시와 서정시의 관계가 아니라 ‘역사의 음악성’과 ‘음악의 역사성’이라는 의미망으로 전환하면서 천스상의 시언지(詩言志) 전통에 대한 ‘시’와 ‘지’의 율동관계 논의를 인식론적으로 접목한다. 이러한 미학의 인식론적 차원을 다시 선충원(鮮承源)에 대한 ‘형상의 음악성’의 이론적 근거로 제안한다고 할 때, 그 해석적 효율성은 배가될 수 있다.

프루세크에 대한 왕더웨이 서정론의 이론적 의거는 왕더웨이의 프루세크 평가를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만든다. 먼저 왕더웨이는 그의 문학사 관점을 중국의 혁명사관과 구별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 프루세크가 서정을 중국 시 전통과의 단절과 서구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을 마르크시즘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서정에 대한 인식으로 대륙의 좌파문학가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긍정하거나, 전통시가에 대한 과도한 유물론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프루세크가 두보(杜甫)와 백거이(白居易)를 사시(epic)의 시대에 서정성(the lyric)으로 파악했다는 평가는, 저자가 그의 서정 논의에서 계발받은 요소가 적지 않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 혁명문학 서사를 비판하고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왕더웨이에게 프루세크 비판이 서구학자의 오리엔탈리즘적 한계로 집중되는 것

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프루세크의 사시/서정 구도를 천스상의 시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프루세크의 서정전통의 절속(絶續) 문제를 서구학자의 서학중용(西學中用)적 시각의 한계로 해석해야 하는 논리적 포석 역시 당연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왕더웨이가 이들을 호명하는 방식이다. 저자가 서정론을 구성하는 결절점, 즉 서정의 현대성을 시 전통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으로 파악해야 하며, “유정의 역사”가 혁명서사에 의해 약화된 전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주되어 왔음을 논증해야 한다고 할 때, 왕더웨이에게 프루세크의 문학사관과 천스상의 서정론은 서로 다른 정치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호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충원이라는 지점은 어떻게 그들과 조우하는가? 이 글에서 프루세크와 천스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달리 선충원은 “추상의 서정”이라는 글로 매개된다. 두 논자에게서 도출된 ‘서정전통의 연속성’과 ‘시의 역사성’이라는 설명틀은 “추상의 서정”에 대한 해석으로 그 구체성을 확보한다. 한 편의 미공개 잡문이 두 논자의 이론과 대등하게 놓이는 것은 선충원이라는 작가와 작품세계 전반에 대한 왕더웨이의 학문적 정도라는 연원도 없지 않지만, 서정론 구성에서 “추상의 서정”이라는 글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왕더웨이는 선충원의 “추상의 서정”을 ‘상실(傷逝)의 미학’으로 설명한다. 상실의 서정미학은 『초사』로부터 지속되어온 ‘슬픔(悲興)의 시학’의 우환적 정서이며, 한위육조(漢魏六朝)의 ‘물색(物色)과 ‘연정(緣情) 전통을 관통하는 ‘유형(有形)의 산물’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에는 저자가 구상하는 서정론의 핵심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상실의 미학양식과 그 형성기제를 역사유물론적 토대로 논증하고자 하는 왕더웨이의 염(念)은 “추상의 서정”에서 드러나는 이에 관한 편린들로 맥락화된다고 하겠다. 그에 의하면 상실의 서정이 역사의 폭력성으로 인한 좌상(挫傷) 반응이라고 했을 때, 선충원

의 “추상의 서정”은 1950년대 혁명서사에 대한 변증과정에서 생성되는 ‘발분서정’으로 이는 현실과 유리된 자폐적 정서가 아니라 유정의 문자이며 무정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기록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선충원의 상실감이 문자의 표의성에 의존하지 않고 ‘문자성’ 자체의 언어형식으로 표상된다는 왕더웨이의 해석은 그가 지향하는 서정양식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서정을 수사와 소리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음상’(音像)이 자아와 세계의 내재적 모순에 대응하는 ‘형상’(形象)으로 드러나는 양식이라고 설명할 때, 즉 ‘형상의 음악성’, ‘음악의 역사성’을 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혁명서사의 결정론적 해석구도를 넘어서는 다른 층위의 서정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형성(形聲)’을 하나의 ‘서정양식’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욕은 선충원의 “추상의 서정”을 이러한 미학양식의 실례로 매개하려는 수사를 동원하게 한다. 즉 선충원의 “추상의 서정”을 통해 제안하는 ‘시의 음악성’과 ‘문자의 표의성’이라는 대칭구도가 기존 담론에 대한 비판적 메커니즘으로 설정될 수 있다면, 프루세크와 천스샹을 통해 대륙 밖으로 연장되는 경계영역은 단선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나 지리적 경계를 넘어 대륙서사와 교섭할 수 있는 담론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천착하는 역사의 좌상반응인 ‘상실의 미학-원성’은 홍성의 운동방식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설명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왕더웨이가 ‘서정’(抒情)과 변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정’(有情)이라는 기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정의 역사’는 시언지(詩言志)의 계승과정 속에서 ‘흥(興)과 원(怨)’, ‘정(情)과 물(物)’, ‘시(詩)와 사(史)’의 변주적 운동과정의 연속으로 설명된다. 또한 저자는 ‘원성’의 복원 자체만으로 정치적 의미가 발생한다고 강조하는데, 중국 현대문학에서 ‘원성’이 세계와의 균열로부터 미끄러지는 지점에서 종종 ‘시력(詩力)의 초월성’, ‘몽어(蒙語)의 추상성’으로 표상된다고 할 때, ‘원성’은 근대에 대한 서정

주체의 불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불화의 간극을 메우려는 적극적 ‘모색으로서의 동일성’, ‘또 다른 방식의 합일’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홍/원’의 서정성을 주체와 세계의 관계방식의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양자의 서정성이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홍/원’의 구도가 음양지정의 ‘자소피장’(自消彼長)의 운동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때, 홍성은 원성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원성은 홍성의 ‘연속성’으로 파악될 때 온전하게 설명된다.

따라서 왕더웨이가 ‘원성의 존재양식’을 ‘자소피장’의 기제로 설명하는 것은 ‘유정의 동일성’을 전제할 때 명확하게 파악된다. 즉 원성은 현실의 좌절이 클수록 서정 주체가 스스로 소멸을 피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전유할 때 자연스럽게 실현된다는 설명에서 왕더웨이가 ‘자소피장’이라는 기제에 주목하는 것은 원성의 복원을 위한 당위적 명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성의 존재론적 필연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론의 자장운동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는 ‘자소피장’의 기제 속에서 ‘원성’의 존재양식은 ‘홍성의 합일’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정의 동일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부각될 수 있다. ‘원성’의 수사학적 기능은 유정의 역사적 연속성을 구조화하는 서술 전략이며,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담론장은 원성을 홍성에 대한 비판기제로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획득하게 된다.

유정의 동일성에 대한 수사학적 핵심은 혁명서정의 배치 문제이다. 저자는 “조금만 주목한다면, 문학혁명에서 혁명문학까지 서정과 관련된 상상과 창작, 의론은 주류담론의 결정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주류담론에 저항하는 주요근거가”(王德威, 2010, p. 33) 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주류담론을 강화하고 이를 해체하는 기제로 서정담론을 배치하는 문맥은 상당히 흥미로운 논리적 전치(轉置)로 독해할 수 있다. 서정담론은 주류담론으로부터, 주류담론을 통해서 구축되는 담론양식의

로, 혁명서사에 대한 대항기제로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서정담론의 폭과 범주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 이에 대한 논증으로 제시하는 량치차오, 왕귀웨이(王國維), 루쉰(魯迅), 저우쥔런(週作人), 귀모뤄에서 취치우바이, 원이둡(聞一多), 마오쩌둥과 후펑(胡風)까지의 서정 관련 글을 혁명서사를 보완하고 이에 저항하는 맥락에서 독해할 때, 이 서정 논의들은 주류담론의 타자가 되는 동시에 주류담론을 타자로 매개하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혁명서사 내부에서 기술되던 혁명서정을 서정담론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문제는 핵심적이라 하겠는데, 예를 들어 좌익서사의 혁명적 낭만성은 혁명서정으로, 혁명서사에 국가 상상의 주요 단서를 제공한 홍색시학은 마오의 시대서정으로 재기술되면서 혁명서정의 혼종적 발화 위치는 혁명서사의 낭만성을 서정론 내부로 끌어들이는 수사적 기능으로 매개된다.

이에 대한 가장 극적인 해석은 후펑 사건이다. 왕더웨이는 1950년대를 대중(衆)과 개인(個), 주와 객의 간극을 방대한 시의적 상상으로 봉합하는 ‘서정시기’라고 해석하면서, 이에 덧붙여 후펑 사건을 개입시킴으로써 서정담론의 해석 폭을 극대화한다. 1950년대 마오의 “완계사”(浣溪詞)는 상거환무(上舉歡舞)의 역사 도래를 선포하는, 시인만이 흥회(興會)로써 천하가 하나됨을 선언할 수 있는 시적 역사선언이라 할 때, 시대서정에 필연적으로 연쇄되는 원성의 양식으로 후펑의 “시간이 시작되었다”(時間開始了)가 독해된다. 후펑 사건을 후펑의 “시간이 시작되었다”와 마오의 “완계사”의 대창(對唱)구도에서 시로 역사를 표상하는 수사의 권력 문제로 해석할 때, 마오 시대의 서정은 후펑의 서정을 매개하여 유정의 담론 내부로 포섭될 수 있으며, 1950년대의 ‘사시’(史詩)의 역사권력은 ‘시사’(詩史)의 언어권력과 평행하게 배치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선충원의 “추상의 서정”을 마오의 시대서정에 대한 ‘원성’의 회음(回音), 즉 ‘홍성’의 또 다른 존재방식으로 독해할 때 그 해석적 효

율은 극대화된다. 이데올로기적 ‘대항서사’를 ‘율’(律)의 ‘변형서사’로 포섭하는 서정의 재맥락화는 그가 구상하는 ‘대화’의 수사적 정점일 것이다.

“유정의 역사”를 구성하는 서술전략에서 드러나는 왕더웨이의 역사 해석에 대한 수사학적 욕망은 효율적인 만큼 위험하게 읽힌다. 대륙 중심의 혁명서사에 대한 비판담론 개입이 요청되고 20세기 문학담론에 시 전통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왕더웨이의 서정담론에 대한 경계심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담론이 내정하고 있는 또 다른 구심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서정의 정의가 포괄적일수록 서정론의 경계가 약화될수록, 서정에 대한 해석이 효율적으로 강화될수록, 그의 서정론은 그가 비판하는 혁명서사의 구도와 닮아가기 때문이다. 혁명서사를 해체하는 방식이 이를 ‘흡수’하고 ‘반복’하면서 재기술될 때, 이러한 역사 재현의 시도는 시도되는 동시에 끊임없이 도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정이 서사를 ‘대신하여 말하고’, 홍성과 원성의 율동과정이 ‘합일’이라는 구도로 설정된다면, 역사-시간에 대한 성찰과 숙고는 불가능하다. 홍성과 원성의 절충적인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이질적 서정요소가 산재된 산만하고 불완전한 집합으로 제기될 때, ‘시사’라는 역사성은 근대문학의 장에 단순한 매개변수가 아닌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비록 저자가 자신이 구상하는 대안적 담론장을 아직 언표화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의 서정론의 논리적 맥락은 환원론적인 구도를 반복할 수 있으며, 그의 해체론적 수사가 이러한 의문들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왕더웨이가 현대라는 ‘시간’과 서정이라는 ‘사건’을 ‘역술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비판에 또 다른 방증자료가 된다. 1960년대 이후 선충원의 “추상의 서정”이 대륙 밖 천스상의 서정론으로, 프루세크를 매개하여 샤즈칭으로 연결되는 이 담론의 끝자리에 왕더웨이

가 위치한다. 서정담론에서 저자가 자신의 학문적 계보화를 위한 논리적 배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의 해체론적 비판은 자의적 역사 재현이라는 혐의를 생산적으로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III. ‘밖’에서 ‘대륙을 바깥에 포함시키는’(包括在外) 경로

왕더웨이가 서정론으로 자신의 학적 정위(定位)를 설정하는 데에는 최근 미국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조급함이 깔려 있다. 여기에는 타이완과 홍콩 학자들로 대변되었던 미국 내 중국연구가 대륙 연구자들의 참여로 연구 주체의 재편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미국 중국학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였던 타이완과 홍콩 출신의 중국학 연구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발화의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치열한 담론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원 내부적으로 중국연구는 초학제성을 전제로 한 문화연구 혹은 지역연구로의 학제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문학의 특수성을 부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학제성 자체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학원의 문학연구자들에게 실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학연구는 지역연구의 일환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문화보편주의의 지역적 사례로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도록 구조화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미국 내 중국 해석에는 이러한 현실구조의 변화가 지난 과거 어느 시점보다 복잡하게 교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 내 중국연구에서 냉전구도가 이미 극복되었다는 평가는 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학연구 내에서 하나의 변화로 거론되는 문학사 해석의 문제에 국한시켜 본다면, 탕샤오빙(????)의 『중국의 근대: 영웅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왕반(??)의 『과거

로부터의 계시: 현대중국의 트라우마, 기억, 그리고 역사』의 경우, 20세기 중국문학사에 ‘기억’, ‘일상’, ‘감성’이라는 매개고리를 변증적으로 개입시키면서 혁명사관을 비판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거론되는 다양한 텍스트들은 혁명사관에 의해 부정되거나 배제되었던 또 다른 움직임에 대한 방증자료로 제시되면서 혁명에 대한 일상과 기억의 의미를 역사의 변증적 동인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역사 재구성의 방법론은 왕더웨이의 서정담론과 상당히 근접해있다. 그러나 양자의 입장은 혁명사관에 대한 시각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데, 앞의 논자들이 혁명사관에 대한 비판담론으로 자신의 논점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한 보완적 방식으로 혁명사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왕더웨이 서정론의 논리적 입각점은 혁명사관의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왕더웨이가 ‘Sinophone’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담론에 개입하는 것도⁴⁾ 5·4로부터 시작되는 단일한 중국사 해석의 경로를 다원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양자의 입장 차이에는 분명 국민국가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왕더웨이가 끊임없이 경계를 표하는 지점 역시 ‘현대중국’이 ‘대륙’이라는 하나의 중국으로 표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중국학 내부에서 대륙 출신의 문화정치적 역할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 왕더웨이가 지적하듯이 “누가 중국을 재현하는가”라

4) 왕더웨이는 지속적으로 ‘중국 당대문학’을 ‘해외 화어계문학(Sinophone Literature)’이라는 범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1996년 타이완에서 출간된 『당대소설가 작품선집』 20권에는 8명의 대륙작가를 제외한 상당수의 타이완 작가(예를 들어 朱天心, 朱天文, 李昂, 平路, 駱以軍, 蘇偉貞, 黃錦樹, 張貴興 등)와 일부 홍콩작가를 배치하고 있으며, 2001년 문학평론집 『떠들썩한 이후』(衆聲喧嘩以後)는 제1부에서 타이완 작품을 단독으로 논하고, 제2부에서 대륙,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국어 작품을 묶어서 논의하고 있다. 王德威(2001).

는 문제는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가”의 층위에서 해석되고, 학제 연구로 더욱 공고화된 문화 재현의 역할은 실제로 상당부분 대륙 출신의 학자들에게 요청되고 있다. 왕더웨이는 누구에 의해서 중국이 표상되고 했을 때 그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표상권력의 근거와 그것이 작동하는 문화정치학적 의미와 기능이 동시에 해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핵심적 의제는, 포스트 문화담론 내부에 중국 표상이 개입되는 데 전제되는 대륙 지식인 고유의 심리적 기제와 이데올로기가 결국 오리엔탈리즘과 내셔널리즘이라는 구도로 재소환되는 문제, 이를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위협으로 그들이 중화라는 단일한 민족공동체 집단을 일반화하게 되거나 중국문학/문화연구를 서구의 마이너리티 담론으로 구조화하는 문제이다. 왕더웨이는 포스트 담론과의 교섭에서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예로 든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에 의해 제1세계에 적극적으로 환기된 중국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은 그의 제자 장쉬둥(張旭東)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아쉽게도 장쉬둥이 치밀하게 논구하는 중국의 특수성은 제임슨의 논의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담론화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짐으로써 제임슨의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이론구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기능화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로부터 ‘중국적인 것’으로 서구담론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빠르게 확보되지만, 그가 제1세계를 향해 설명하는 ‘문화에 의한 정치적 차이’는 상호 교섭할 수 있는 경계지대를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대륙 출신 연구 사례에서 보듯이 서구담론과 역동적인 대화장을 구성하는데, 서구담론에 의해 ‘주어진’ 표상권력은 결국 중국연구를 마이너리티로 위치시키는 대가로 얻어질 수 있는 ‘양날의 칼’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왕더웨이는 이를 중국 지식인의 문화심리적 기제로 파악하며 5·4의 ‘유산’이 대륙 지식인에게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진단한

다. ‘감시우국’(感時憂國, Obsession with China)(C. T. Hsia), 중국이 서구만큼 강해지고 서구와 대등해지는 것. 그들이 발화하는 지점이 100년 전 중국 내부이든 현재의 미국이든 그들에게 문제의 핵심은 서구나 제국주의가 아니라 여전히 중국대륙, 그곳의 내재적 발전이라고 할 때, 그들의 발화에 선재(先在)된 자기 중심에 대한 열망은 결국 자신의 타자성을 주체화하지 못함으로써 서구 혹은 중국담론에 비판적 계기 혹은 반동적 계기로서 작동할 수 없는 심리적 기제가 된다. 이러한 문화심리적 기제는 담론 이전에 선행하는 전제로 담론의 운동성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왕더웨이는 이를 서구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근본적 문제로 진단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화라는 내적 욕망을 견제하면서 서구의 도덕적 안전장치나 문화담론에 도구로 구조화되지 않는 ‘출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왕더웨이뿐만 아니라 레이 초우(Rey Chow) 역시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전술은 담론을 개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한다. 그들이 말하는 담론장은 양자가 언표화하고 있듯이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개념에 가깝다. “존재하는 것이 곧 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바흐친의 ‘대화적 존재론’은 그들에게 시급하게 요청되는 ‘경계적 실존’에 대한 사유 방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바흐친이 구조화 ‘이전’에 외부 타자를 개입시키는 존재론적인 차이와 복수성에 주목한다는 점은 ‘중국’ 밖에 있는 중국 지식인이 담론에 교섭할 수 있는 개입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유리 로트만). 바흐친의 논의가 다분히 유토피아적 원론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 초우는 그의 문화경계론적 사유와 개방형의 총체개념이 현재 중국담론 구성에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그녀는 중국 지식인이 “지리적 의미에서건 문화적 의미에서건 중국의 영역 바깥으로 자각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자의

적인 이동 — 중앙왕국(中國)에서 중심(中)을 해체하는 — 은 그들이 열망하는 “인민의 마음속에 있는 법정”(레이 초우)⁵⁾이라는 공동체적 규제력이 작동하는 담론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유효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레이 초우에 비해, 왕더웨이는 바흐친을 문학담론 내부로 한정시키려는 의도이다. 왕더웨이에게서 근대적 문(학)의 경계를 사회역사적 의미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바흐친이 텍스트를 ‘복수 체계의 다성악적 교통’ 그 자체로 인식하는 사유는 왕더웨이가 상상하는 문학장의 가설, 즉 전통적 ‘문·사·철’(文史哲)의 역동성을 다시 불러내는 접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가 서정담론에서 서정의 역사성을 반복적으로 환기하는 문맥을 문학의 역사재현 문제가 아니라 ‘문(文)의 존재론’을 ‘철학적 대화론’으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때, 그 의미는 훨씬 명확하게 읽힌다. 하나의 개방형 대화장으로써 ‘문·사·철’의 기호 총체, 바흐친은 왕더웨이에게 ‘문인 전통’이라는 상상적 담론체로 호명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왕더웨이가 구상하는 대화적 담론장이 지속적으로 현실 비판력을 지닐 수 있는가는 문제적 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의 서정담론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기존 중국문학을 대륙 중심에서 경계영역으로 끌어내는 해체론적 접근방식은 이로부터 상상되는 대화적 담론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연결되기 어렵다. 왕더웨이 담론의 비판적 기능에 대한 의구심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Sinophone Literature’(海外華語系文學)(Shu-mei Shih)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에서 대륙을 배제하는 비(非)대륙 화어문화공동체의 저항방식에 대해 왕더웨이는 탈식민적 대립구도를 저항적으로 기표화하기보다는 ‘대륙을 바깥에

5) 1979년 ‘베이징의 봄’을 주도한 웨이징생(魏京生)이 “要民主還是要新的獨裁”, 『爭鳴』, 第137號(1989, 3)라는 글에서 대안적 권력형태의 수사로 사용한 용어를 레이 초우는 담론권력과 개념의 문제로 인용하고 있다.

포함시킨다’(包括在外)는 디아스포라적 지점을 매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한다.⁶⁾ 물론 왕더웨이가 담론 구성과정에서 대륙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적 측면에서 상당히 실용적인 유연함을 보이는 측면은 담론에 선행하는 중국 지식인의 경세치용적 현실인식이 동시에 작동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입방식은 그가 대륙 지식인들이나 저항의 입장을 강조하는 비대륙 지식인들과도 다른 발화방식을 취하게 만드는데, 서정담론에서 혁명서사를 해체하면서 이를 재포섭하려는 것이나 사회주의 문학/문화 관련 담론에 대륙의 대항 파트너로 적극 개입하면서 상당히 준비된 타이완과 홍콩 출신 연구자들에게 발언장을 제공하는 전략은 ‘대륙을 바깥에 포함시키는’ 경로를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화정치적 행보는 미국의 중국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륙 지식인들의 운동방식과 수평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의 실천 경로가 대륙 중심의 담론을 견제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은 왕더웨이의 실천전략이 탈식민 논의의 인과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할 때, 그의 서정론에 대한 분석 역시 중국 지식인 사유방식의 특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홍/원’이라는 울동기제가 ‘시적 실천방식’으로 개입되고, 대립되는 것들이 상보적으로 작용한다는 체험적 인식론이 ‘음성적 인식론’의 양식으로 구

6) ‘海外華文文學’, ‘世界華文文學’이 여전히 대륙문학 이외의 지역문학을 지칭함으로써 국민국가, 중심서사의 위계를 반영한다고 할 때 ‘Sinophone Literature’를 이에 대한 저항적 기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영어권 중국문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음성 중심의 언어종족 단위의 Anglophone·Francophone·Hispanophone·Lusophone 등과 함께 탈식민서사를 기표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왕더웨이는 중국의 식민 역사경험이 대륙을 포함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륙에 대한 저항기표로 문맥화할 경우 지리적 분계를 내정하는 위계서사로 전략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성되는 과정에서 서정담론, 즉 담론체로서 ‘문’(文)의 가능성은 충분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적 토대가 담론화 과정에서 자기조절적 비판적 규제력을 생성하는가이다. ‘문’의 담론체를 탈영토화된 실천적 담론장으로 불러내는 문제, 원성의 발화양식을 흥성의 변형으로 포섭하지 않고 다시 문(文)의 결절로 배열하는 문제는, ‘包括在外’라는 경계적 전략과 동시에 대응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서정담론에 대한 질문은 그 실천 개입의 효율성으로부터 되물을 필요가 있으며, 왕더웨이(王德威)가 자신의 ‘경세치용’의 실천에 얼마나 담론구성의 긴장을 내화하는가라는 수행적 층위에서 재고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게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오문석·이진형·차승기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서울: 책세상, 2006).
- 김준오, 『시론』(서울: 삼지원, 2000).
- 레이 초우(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서울: 이산, 2005).
- 유리 로트만(김수환 옮김), 『기호계』(서울: 문학과지성사, 2008).
- 폴 A. 코헨(이남희 옮김), 『학문의 제국주의』(서울: 산해, 2003).
- 해리 하르투니언(서정은·윤영실 옮김), 『역사의 요동』(서울: 휴머니스트, 2006).
- 『陳世驥文存』(臺北: 志文出版社, 1972).
- 季進, “文學譜系·意識形態·文本解讀—王德威的學術路向”, 『當代作家評論』, 第1期(2004).
- _____, “海外漢學: 另一種聲音—王德威訪談錄之一”, 『文藝理論研究』, 第5期(2008).
- 高友工, “文學研究的美學問題(下): 經驗材料的意義與解釋.” 『中國古典與文學研究論集』(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04).
- 梁宗岱, 『詩與真』(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6).

- 『沈從文全集』(太原: 北岳文藝出版社, 2002).
- 王德威, 『抒情傳統與中國現代性』(北京: 三聯書店, 2010).
- _____, 『想象中国的方法: 歷史·小說·敘事』(北京: 三聯書店, 1998).
- _____, 『衆聲喧嘩以後: 點平當代中文小說』(臺北: 麥田出版社, 2001).
- _____, 『被抑壓的現代性: 晚清小說新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_____, ““華語文學研究的進路與可能”專題研討” 『中山大學學報』, 第5期 第46卷(2006).
- 『宗白華全集』(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4).
- 龐書緯, “以‘中國’的方式想像中國”, 『中國比較文學』, 第3期 第84卷(2011).
- 湯拥華, ““抒情傳統說”應該緩行”, 『文藝研究』, 第11期(2011).
- Ban Wang, *The Sublime Figure of History: Aesthetics and Politics in Twentieth-Century Chin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 C. T. Hsia, “On the ‘Scientific’ Stud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A Reply to Professor Průšek”, *T’oungPao* 50.
- _____, *A History of Modern Chinese Fiction 1917-195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1).
- Dai, Jinhua, “Behind Global Spectacle and National Image Making”, *Positions* 9-1 (Spring 2001).
- David Der-wei Wang, *Fictional Realism in 20th Century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 _____, *The Monster That Is History, Violence, and Fictional Writing in Twentie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Jaroslav Průšek, “Basic Problem of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and C. T. Hsia, A History of Modern Chinese Fiction”, *T’oungPao* 49.
- _____, *The Lyrical and the Epic: Studies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ed. Leo Ou-fan Le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 Shu-mei Shih,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s across the Pacifi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 Xiaobing Tang, *Chinese Modern: The Heroic and the Quotidia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0).

Xudong Zhang, *Postmodernism and Chin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77).

_____, *Postsocialism and Cultural Politics: China in the Last Decade of the Twentieth Centu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